

## 제35회(2023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가톨릭 근로자회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처) 신부가 1975년 대구에 설립한 가톨릭근로자회관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라’ 는 가톨릭교회의 정신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상담과 교육 지원을 해왔음. 대구·경북지역에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들을 위해 노동 및 법률상담, 의료지원, 한국어 교육, 필리핀·베트남·동티모르·페루 이주민 공동체 모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돕고 있음.
의료봉사상	우석정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흉부외과 전문의로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효율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함.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환자를 돕기 위해 2001년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나 무의촌 의료 봉사를 하였음. 이후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에는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 룡안 세계로병원을 개원해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음.
사회봉사상	이정아	1988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야학교사를 시작한 후 경기도 부천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활동을 하다 2007년 물푸레나무청소년공동체를 설립함. 취약아동 그림책 도서관, 거리의 청소년 무료 급식소, 청소년 버스 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학대, 방임 등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고민 상담과 지원 연계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음.
복지실천상	남유진	제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남 가정위탁 지원센터,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의 소외 아동과 위탁가정,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설예심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 상담과 장애인의 자립,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가로 일했고, 2011년 장애인 야학 설립의 실무자 역할을 맡은 이후 장애인들의 교육 증진에 기여함.
	유호수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입소 아동을 위해 원가정 복귀와 자립, 대학 진학, 장학금 연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지역사회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개소하고 지자체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정현숙	어릴 때 부모가 운영하던 방앗간에서 기계사고로 왼쪽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자립에 기여함.
자원봉사상	강봉희	장례지도사로서 2004년부터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장례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장례를 진행하는 등 소외계층을 돕는 데 힘쓰고 있음.
	김영문	지체장애 5급과 호흡기 중증장애가 있지만 짜장면 급식 봉사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돕고 있음. 또한 무료 급식소 운영이 끝나는 오후 시간에는 소외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와 보일러 교체, 무료 이사 등을 돕고 있음.
	깨끗한노인 자원봉사회	‘깨끗하고 친절하고 멋진 노인이 되자’ 는 목표로 2005년 대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설립된 자원봉사 단체로 노인 정서지원, 청소년 교류, 장학금 모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효행·가족상	김정숙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여섯 동생을 돌보는 가장의 역할을 했고, 결혼 후 시부모를 부양하며 3명의 자녀와 사고로 혼자 남겨진 조카까지 입양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정옥자	전신마비 남편을 8년간 간병했고,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딸을 3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봄. 딸이 생전에 설립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회원들과 교류하며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조인선	장남인 남편과 결혼 후 시조모와 시부모를 부양했으며,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왔음. 암 수술 후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감글 농사도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어려운 주민들도 돕고 있음.
	풍숙영	중국 결혼이주여성으로 2007년 결혼 후 치매를 앓는 시모와 중증장애인 남편을 보살피고 있으며,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 농사일 등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음.
	하맹선	젊은 시절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농사를 지어 대가족을 부양하면서 시동생과 자녀들을 양육했고, 몸이 불편한 시부모를 정성으로 간호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함.